

# 슬기로운 삶

The Wise Life

에베소서 5:15-1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0년 12월 26일 설교

**15**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지 두루 잘 살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슬기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16** 때를 건지십시오. 날들이 악하니깐요. **17** 그러니 우둔하게 되지 말고 무엇이 주님 뜻인지 깨닫고, **18** 술에 취해 막살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지십시오.

## 똑똑해지는 때

연말연시는 똑똑해지기 좋은 때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날로 달로 해로 나누셔서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똑똑해집니다. 아이큐도 올라가고 치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삶이 무엇인지, 참되게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제대로 좀 삽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사람답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생각하면 똑똑해진다" 하지요? 생각해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 안 해서 우둔하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지 두루 잘 살펴." "두루 잘 살피라"는 말은 신중하게 살펴보라,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뭘 말입니까? 어떻게 살 건지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어디 공돈 좀 안 생기나, 놀 일 좀 없나, 그런 것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야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 살피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잘 거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악한 날들

슬기로운 삶을 사는 첫 단계는 삶이 악하다는 걸 깨닫는 단계입니다. "때를 건지십시오. 날들이 악하니깐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날들이 악하다 했는데 날, 영어로 데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의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생기면서 시간도 생겼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녁이 오고 아침이 왔지요. 시간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생긴 지금도 영원의 상태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날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까.

날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뭐기에 악합니까? 바쁜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뭘니까? 돈이지요. 성경은 돈을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도 악하다 한 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바쁜 사람한테도 안 바쁜 사람한테도 시간은 삶이요 목숨입니다. 얼마만큼 살았는지 물을 때 몇 살이냐 하고 시간으로 묻습니다. 태어나 살다가 가는데 삶을 결산할 때도 몇 살을 살았는지 따집니다. 삶이 곧 시간입니다.

시간이 악하다는 건 삶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게 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악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게 악입니다. 이 악은 본디 마귀한테서 나왔는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으면서 우리 삶도 악해졌습니다. 우리만 악해진 게 아니지요. 온 우주가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일 5:19). 악한 삶은 오늘도 부지런히 죄를 짓는 삶, 그리고 그 죄가 낳은 갖가지 열매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 때를 건지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걸 아는 게 똑똑해지는 첫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죽음 아래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때를 건지십시오.” 때를 건진다? 우리가 목욕탕 종업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건질 때는 시간입니다. 성경 원문인 그리스말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처럼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영어 Chronicle, Chronology 같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그냥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건 시간을 똑 똑 자른 겁니다. 순간, 때, 기회, 특히 중요한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 이런 걸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순간이 마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뜻이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때를 건지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하고 옮겼습니다. 영어도 NIV랑 RSV는 “기회 또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자는 말 같지요? 말은 좋지만 원문의 뜻은 안 그렇습니다. 원문이 특정한 표현을 쓸 때는 그 뜻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제가 “건지라” 하고 옮긴 말은 원문이 “속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할 때 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갈 3:13; 4:5). 이 말은 노예시장에서 쓰던 용어라 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 내 노예로 안 삼고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를 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들이 악하다 하였습니다. 그 악한 시간, 죄 아래 있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 자유의 시간으로, 죄를 벗어난 해방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 하나님의 뜻

때를 건지는 방법은 뭐가 주님 뜻인지 깨닫는 겁니다. 가만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생각해야 됩니다. 뭘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두루 잘 살피라 하였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의 허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따져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산다는 말의 원문은 걷는다는 말입니다. 걷는 건 발을 내딛는 거지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걸음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걷는 걸음입니다. 목표를 향해 바로 걸을 수도 있고 엉뚱한 곳을 디딜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땀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몸이 공간을 움직일 때 우리는 시간 속을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내디디면, 목표를 향해 바로 내디디면, 그 순간, 그 때를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때를 건져가는 일을 한 번 두 번 거듭하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멋진 삶이 됩니다.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거니와 혹 희미하게 알았다 해도 그 뜻을 순종할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다 됩니까? 순종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지요 (롬 8:7).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노예였거든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죄 만드는 기계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났으니 이제 됩니까? 자유인이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기 전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도 있을뿐더러 그대로 순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값 치르고 우리를 먼저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질 차례입니다. 남 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건지는 겁니다. 내 삶을 건지는 겁니다. 악한 날들로 이루어진 내 삶을 건져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날들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슬기롭게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 술과 성령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똑똑해지는 거 아니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날, 곧 우리 삶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니 때를 건지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날로 달로 해로 나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 알아서 똑똑해져라, 너 혼자 자라가라 안 하시고 내가 도와 주마 하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똑똑해지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술에 취해 막살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지십시오.” 재미있지요? 성령을 술에다 비기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술하고 성령하고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술이나 성령이나 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완전 장악합니다. 주인이 되는 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놀린다고 술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알고 보면 엉터리가 아닙니다.

술을 마셔서 술이 내 속에 들어오면 술이 내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술 주(酒) 자 주님이 명령하면 불순종은커녕 말대꾸도 못 해요. 그런데 술도 주님이라서 지켜 주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꼭 상대방만 죽고 음주운전한 사람은 안 죽어요. 또 멀쩡한 사람은 넘어지면 다치는데 술 먹은 사람은 도대체 알코올이 얼마나 잘 지켜 주는지 웬만해서는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한국을 보니까 그 주님이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추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술을 먹고 했다 하니까 상당히 봐줍니다. 판사 검사도 같은 주님을 믿어 그런 모양인데, 한국은 교회도 많으니 이래저래 주님 나라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스개고 어쨌든 술을 먹으면 술의 노예가 되는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기꺼이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술과 성령은 또 내가 선택해야만 내 주인이 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술이 가만있는 내 입으로 치고 들어와 “너 꼼짝마!”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셔야 주인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당들의 신앙고백이지요. 내 선택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성령께 드리지 않으면 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 술 아닌 성령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요. 술은 일단 나를 장악하면 나를 완전히 억누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 사람이 사람으로서 챙겨야 할 일을 못 챙깁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되는 거지요. 체면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죄도 마구 짓습니다. 마시고 안 마시는 건 내 자유지만 일단 마시면 그 술이 힘이 약해져서 나를 놓아줄 때까지는 내 행동을 책임질 나, 자아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짓밟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도록 곁에서 도우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남는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지요 (갈 2:20)? 그렇게 내가 사라진 뒤에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 또 납니다. 이전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지요. 성령께서는 나를 없애거나 밀어내시지 않고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생각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내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힘도 주시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어떤 유혹, 방해, 도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 대신 하시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십니다. 술에 취하면 막습니다. 막산다는 게 뭘니까? 닥치는 대로 산다, 다시 말해 아무 생각도 없이 판단도 없이 본능이 부르는 대로 몸이 하라는 대로, 아니 내 속에 있는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책임은 생각도 못 하지요. 우리 날 곧 우리 삶이 약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악이 그대로 나오고 죄만 짓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지요.

성령으로 채워지라 했습니다.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술도 마시는 만큼 나를 장악하지요. 한 잔 마시면 조금 알팔팔하고 한 잔 더 하면 가슴이 뛰고 더 마시면 혀가 돌아가고 더 마시면 몸도 못 가눕니다. 나중에는 필름도 끊어진다 하더군요. 맞습니까? 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나를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 나를 조금 인도하실 수도 있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나를 완전히 다 드리려,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채우시게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령께서는 내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단계 단계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 악한 날들

이제 2010년 한 해가 거의 저물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날들이 여전히 악하지 않습니까? 뭐가 악이고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삶이니 그 삶과 반대가 되는 게 악입니다. 그 삶을 줄이거나 약하게 만드는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악한 시간이 아닌 선한 시간,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랬지요? 삶은 좋은 것입니다. Life is good. LG지요? 그런데 죄가 와 모든 걸 뒤엎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삶인데 그걸 없애 버렸으니 악이지요. 강도, 강간, 사기, 배신, 폭력, 억압, 착취 이런 것들이 삶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가난, 배고픔 이런 것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 악에 속합니다.

몸을 죽이는 것만 살인은 아닙니다. 마음을 죽여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죄라 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험담하고, 모략하고, 편을 가르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배신하고, 내가 이기려고 남은 짓밟는 그런 일이 올 한 해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지기도 꽤 건졌습니다. 주님 은혜지요.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못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참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요 10:10).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이기만 하던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속에는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주님 은혜로 그걸 조금은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두 번 참을 수 있었고, 거짓말만 하면 돈이 생길 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혹을 이기고 참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그래도 조금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의 책임

그렇지만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면 그저 부끄럽지요. 똑똑한 척은 꽤 했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 참 어리석었습니다. 철저히 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순간에 그렇게 못 하고 내 뜻만 앞세우고, 내 자존심 지키고, 내 고집, 내 욕심만 내세운 일도 많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때로는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무책임한 선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한 해를 살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똑똑한 게 뭘니까? 내가 전에는 어리석었구나 그걸 아는 게 똑똑한 겁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그거 하나 깨달을 수 있다면 적어도 시간을 연 단위로 나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핑계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세상은 악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시간, 세상의 삶은 여전히 악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죽었다” 합니다. 뭐가 죽음입니까? 삶이 없는 게 죽음 아닙니까? 세상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는 언제나 도우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때를 건지고 악하게 사는 내 이웃의 시간도 건지고 못 먹어 죽어가는 이웃, 억눌려 고생하는 이웃, 폭력으로 배신으로 거짓으로 고통 받는 이 세상의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건져내어야 됩니다.

## 다 드리자

해를 마감하는 지금 다시 한 번 우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몰랐다는 핑계도 안 통하고 약하다는 핑계도 안 먹힙니다. 성령께 맡길 때는 다 맡겨야 됩니다. 일부만 맡기면 나머지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날들이 악합니다. 그러면 또 죄로 갑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내 삶이 아직도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일부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온 몸, 온 마음, 내 지식, 내 감정, 내 판단, 내 취미, 내 인간관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건질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연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